

미국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조선전쟁

《6.25전쟁은 더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닌 《영광로운 전쟁》이자 《영광의 승전》이다.》

최근 미국의 정계와 군부, 언론계에서 나오는 주장의 일부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처음으로 조선정전협정결 60년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진행된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데서 조선전쟁에서 마치고 저들이 승리한것처럼 기업을 토하였다.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조선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닌 《잊혀진 승리》이니 뭐니 하는 자화자찬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나오고있다.

미국만이 할수 있는 역사외국이고 억지주장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세기 중엽 미국은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남조선군을 사측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을 질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저들의 위력을 과시하고 손쉽게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 군대들과 남조선군, 지어는 전제국인 일본까지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명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술기체들을 다 동원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에 투하한 군수물자의 수량만 해도 7300여만에 달하였다. 당시 미군부세력들은 저들이 72시간만에 《조선전쟁을 결속지울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무장무진한 힘을 너무도 몰랐다. 탁월한수령의 령도밑에 공화국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수적우세와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도덕적우세와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였다. 미국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발취된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은 세계인민들을 경탄케하고 침략세력들에게는 경악을 자아내게 했다.

그것도 그렇것이 국가형성후 약 130년동안에만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110여차의 침략전쟁과 8900여차의 군사적간섭을 감행하면서 언제한번 패전한적이 없었고 세계대전을 비롯한 모든 전투들에서

《전승》만을 자랑해온 미국이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그림자만 보아도 출혈량을 놀울것이라고 하던 스미스투공대가 인민군대에 의해 풍지박산이 나고 《상승사단》이라던 미24사단이 대전에서 포위된채 운명을 고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미군들이 개죽음을 당하였다. 땅우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 미국의 공중비적들이 영웅한 인민군의 포화력과 비행기들에 의해 추종략업의 신세가 되었고 바다의 수호자들에 의해 《볼티모》호와 같은 수많은 미국의 함선들이 바다에 치박히고 침략자들은 물고기반신세가 되었다. 《백전로장》, 《볼배장군》으로 미국에서 떠돌아다니던 맥아더나 린치웨이, 위커, 클라크, 먼 등 수많은 살인장군들이 《패전장군》으로 치욕을 받고 지옥행을 택하거나 포로병의 처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던지 이에 대해 미국신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조선전쟁에서 《미군의 손실은 미국이 다섯번의 대전쟁 즉 독립전쟁, 1812년의 전쟁, 메히코전쟁, 미에(미국-에스파냐)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얻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이상 더 많다.》라고 썼다.

상승일로를 자랑하던 미국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조선전쟁을 통하여 세계는 미국이 떠돌던 《강대국》, 《초대국》의 신화는 한갓 빈말뿐이며 침략의 부정은 조국수호의 정의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다.

지금 미국이 저들의 참패가 너무도 수치스러워 《잊혀진 전쟁》, 《악몽의 전쟁》이라고 부르던 조선전쟁을 7.27을 계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잊혀진 승리》로 외곡하며 기념하겠다는것은 그야말로 웃지 못할 희비극이다.

력사는 결코 외곡할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도 발을 위해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미화해보겠다고 국성을 부릴수록 그것은 오히려 자기들의 체면만을 더욱 구겨놓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미국이 이처럼 자랑하는 아메리카합중국인 성조기에는 침략자와 피로 얼룩진 미국의 범죄력사가 깃들여있다. 살인의 상징이며 피의 제국의 대명사인 성조기를 빼앗아 휘두르며 오랜 기간의 침략전쟁사를 아로새겨온 미국이 세상에 대고 으시넛것은 크고작은 수많은 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는 양키식자부였다.

《상승일로》의 패감에 젖은 미국의 침략의 예봉을 조선반도에도 돌리었으나 여기에서만은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1866년 《서면》호의 침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조선침략의 추수를 쫓아왔지만 매번 차레진것은 좌절과 치욕의 쓰디쓴 참패였다.

그중에서도 지난 1950년대의 조선전쟁은 미국의 침략력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되지는 대참패였다.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할 흉심밑에 남조선군을 사측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이전의 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정예사단들과 장성들을 모조리 동원하고 인류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까지 적용하며 공화국인민들을 굴복시키려고 발광하였지만 력사의 기록은 어찌했던가. 《상승사단》의 선견대인 스미스투공대는 오산

계전에서 강력한 타격을 받고 순식간에 풍지박산났다. 당시 군사전문가들과 종군기자들이 평하였듯이 《오산의 비극》으로 《미군의 비극적인 패주의 첫막》이 열렸고 그들이 《북한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방어선은 모래성무너지듯 맥없이 돌파당하였다. 미24사단은 대전에서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어 모조리 포위섬멸되고 살구명을 찾던 사단장 먼은 나머지 조선인민군 군인에게 포로되어

못하고 그 모든 시도는 물거품으로 되버렸다. 차례진것은 세계면전에서 당한 2중3중의 수치와 패배, 굴욕감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지난 조선전쟁과 정칙군사적도발에서 당한 참패에서 웅당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있다.

오히려 력사를 외곡하며 그 무슨 《승리》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면서 잊지도 않는 《북의 위협》을 구실로 새 전쟁도발책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 지

호연패를 남조선에 투입한데 이어 남조선군부와 함께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해상기동 및 항공기요격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22일부러는 일본 《자위대》 해군함정들까지 끌어들여 제주도근해에서 대규모적인 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하였다.

얼마전 미국이 남조선강점미군에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요소인 고고도요격미사일 《THAAD》을 배치하기로 결정한것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위협하면서 핵전쟁발발기름을 코스끼리고있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한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였는가 하면 미8군사령관이였던 위커는 인민군 적후부대의 매복에 걸려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그야말로 침략열에 달아오르고 거만해질대로 거만해진 미제의 코대가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에 의해 여지없이 부러지고말았다.

1953년 7월 27일은 미국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친 력사적인 날이다. 이날과 더불어 미국의 이른바 《강대국의 신화》는 깨여지고 내리막길의 시조가 열렸다. 이 시각도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위협천만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지난 11일 미국은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라격집단과 이지스구축함 《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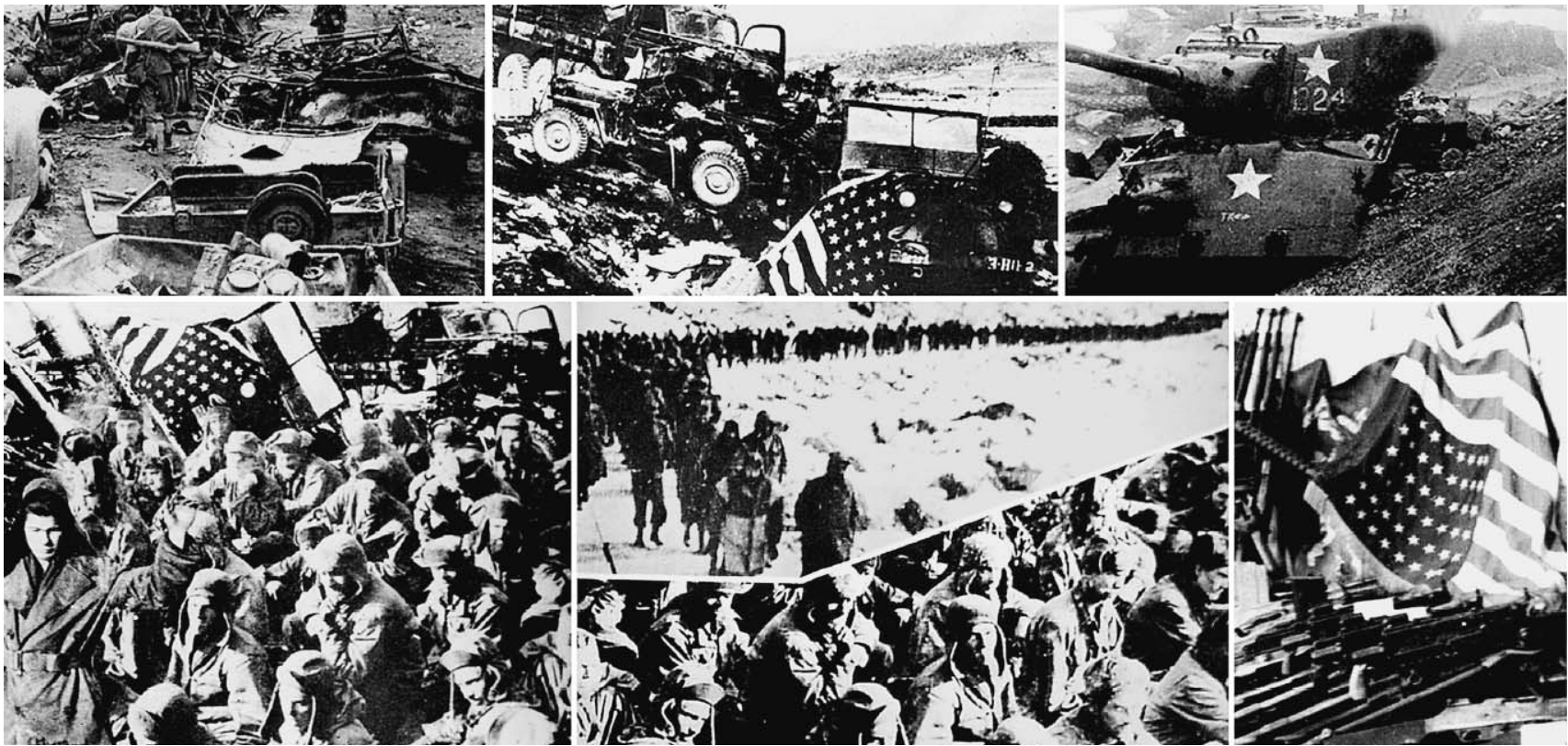
난해》를 《조선전쟁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미국은 국방성청사에 《조선전쟁기념전시관》까지 차려놓고 조선전쟁을 그 무슨 《잊혀진 승리》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승리》로 둔갑시키며 모략남조선전에 열을 올리더도 그것은 북침전쟁도발자, 수치스러운 패배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벌여지고있는 사실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위협천만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지난 11일 미국은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라격집단과 이지스구축함 《키트

력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만일 미국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 땅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수치스러운 패배의 구렁텅이에서 영영 솟구쳐오르지 못할것이다. 미국이 패배를 모르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간지 오래며 앞으로 제2의 조선전쟁이 터진다 해도 승패는 불보듯 뻔하다.

미국은 1950년대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대상과 잘못 된 전쟁을 치르었다.》고 비명을 올린 《패전장군》들의 말이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는것이 필요하다. 불의가 정의앞에 꺾일수 없다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승전일》인가 패전일인가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정전협정조인날인 7.27일을 《승전일》로 《기념》한다고 한다.

하다만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과연 《승리》하였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군 《장군》들의 고백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악한 군대가 강한 군대한테 지는것은 웅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군대에 그렇게 유능한 지휘관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중무기로 무장한지도 몰랐습니다. 인민군대가 이렇게 발전하면 10년만 지나면 세계1등급

의 군대가 될것입니다.》(포로된 미24사단장 먼의 고백중에서)

《미국이 조선에서 격파하였다는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세계에서 그들(조선인민군)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부대는 없다.》(전 미군 장성 타프트)

《조선전쟁은 명백하고의 실패없는 실패이다. 개국 이래 미국의 위신이 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진적은 없었다.》(전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

《나는 모든것이 실패라는 감을 가지고있다. 나의 선임자들인 맥아더와 린치웨이가

군들도 동감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정부의 지시를 집행하면서 얻은것이란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문에 수표한 첫 미군사령관이라는 보잘것없는 명성이다.》(전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잘못 고른 시각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을 하였다.》(전 미합동참모본부의장 오마르 브레들리)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다.》(전 미국무장관 마셜)

조미대결에서 승자는 누구인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으며 얼마전 기자는 공화국을 방문한 재미동포 정기렬선생을 만나 조미대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미대결구도의 근본적변화

기자: 1953년 7월 27일은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패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다. 그러나 쓰디쓴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국은 오히려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에 광분해오고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미사이의 첨예한 대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기 렬: 세계가 놀라고있다. 조미사이의 대결이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다는것은 그만큼 힘이 대등한 상대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조선과 미국은 인구나 령토, 자원과 경제, 군사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비조차 할수 없다. 공화국은 인구가 미국의 13분의 1정도밖에 안되며 령토는 미국의 작은 한개 주정도에 불과하다. 력량상으로 보아도 1:1이 아니라 1:100정도의 대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100이라는 수자에는 미국의 종속국들이 포함되었을것임은 물론이다. 그 100에 유엔안보리사회를 핵심으로 미국지배의 모든 국제조직들,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또한 포함되어있는 불문가지이다. 외견상 비교적체가 불가능한 극단의 비대칭대결구도인것이다.

이러한 대결구도속에서 공화국은 1990년대 후반기 그토록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이겨내고 미국을 대화자리에 끌어내었다.

《인류사에 전무한 세계〈최강〉의 제국》을 세운, 하여

스스로를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까지 부른 미국은 지난 60여년간 조선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온 세상이 세계 《유일초대국》에 머리숙였던 1990년대에도 미국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는 고사하고 반대로 《대화, 타협》을 운운하며 시간만 끄는데 전념했다.

리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자신을 《최초의 패전장군》이라 부른 클라크때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조미대결사, 다시말하여 미해군간첩선 《푸에블로》 호나포사건(1968년)을 시발로 승무원 31명 전원을 동해에 수장시킨 미공군첩보기 《EC-121》호격추사건(1969년), 제비호조미기본합의문(1994년), 조미공동성명(2000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년), 금기야 2013년 4월 중순 백악관에서부터 시작된 서울, 베이징으로 이어진 오바마, 케리 등의 대화구결청탁같은것들로 점철된 조미대결사에서 해답을 찾을수 있을것이기때문이다.

문제는 극단의 비대칭대결사의 전기간 수모와 패배를 경험한 당사자가 불가사의하게도 공화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60여년 비대칭대결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평화협정결을 씹없이 제기하고 요구한 당사자가 바로 공화국이였다.

오늘 지구촌정세는 세상이 머지않아 세계적인의를 갖는 위대한 변화들에 직면하게 될것임을 예고하고있다.

미국의 과거 최고정보책임자와 핵무기관련 최고 권위자의 한 사람이 《조미대결구도에 근본적변화가 발생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미본토를 순식간에 70% 초토화할수 있는 핵폭탄을 복이 이미 개발했다.》는 내용이 증언의 핵심이다. 이것은 일종의 패배선언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2013년 2월말 미국방장관에 취임한 척 헤이글 또한 상원군사청문회에서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해 1월 15일 《미본토에 대한 핵공격위협이 최고고민》이라고 백한 미대령양군사령관 페뮤얼 라클리어중언 역시 마찬가지다. 현직 미국 최고군사지휘관중 한명도 일종의 패배선언을 한것이다. 2014년 1월의 클레퍼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도 현직의 국가최고정보책임자가 고백한 패배선언외에 다름아니다. 지난 60년 특히 지난 20년의 조미대결사가 그들의 증언이 패배선언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말그대로 조미대결사는 공화국이 선군정치로 세계 《유일초대국》을 끝없이 대화자리로 끌어내어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미국을 강제한 력사외에 다름아니다.

2013년 3~4월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최초의 세계대전쟁직전상황이 이를 증명해주고있다. 공화국이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세력의 끝없는 침략기도를 좌절시키며 우

위협강국의 지위에 올라서자 이를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던 미국은 유엔을 내세워 공화국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공화국은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적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공화국의 《전면전선포》에 그토록 오만하던 미국이 4월 11일 오바마를 시작으로 12일, 13일 서울, 베이징을 쫓아간 케리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대화를 구걸하고 청탁했다. 헤이글, 울시, 프라이, 클레퍼, 라클리어 등이 앞다투어가며 증언한 공화국이 개발했다는 최첨단핵무력이 조미대결구도를 이미 근본에서부터

뒤집어놓았기때문이다. 세상이 아직은 다 모르는 공화국의 최첨단핵무력이 미국이 《대화, 타협》 운운하며 공화국에 일종의 백기를 들게만는 실패리유와 배경이었다는것이다. 인류사에 전무한 세계 《유일초대국》을 일떠세운 미국이 평화를 사랑하고 양보를 줄기며 대화를 선호해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1994년 10월의 제비자기본합의문에서부터 2013년 3월 전면전선포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북에 보인 일련의 반응들을 통하여 미국이 공화국을 속으로 이미 자신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자주행각으로 인정하고있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상대를 너무도 모른다

기자: 지금도 미국은 핵실험공격이라는 범죄적전략으로 공화국에 대한 위협을 포기하지 않고있지 않는가?

정 기 렬: 그것은 미국이 공화국을 너무도 모르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은 미국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지만 미국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있다.

핵전쟁위협을 동반한 미국의 위협은 이미 1950년 11월 조선전쟁시기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한 공화국의 도시와 마을을 모조리 파괴하였고 관개수를 제방으로 전기를 생성시키는 큰 저수지도, 그것도 쌀수확계절에 접어들어 목격을 가하여 그야말로 《모든 생명의 청소》를 진행했다. 맥아더는 조선과 중국의 국경지역, 서해

안에서 동해안까지 30개의 원자탄을 투하하고 방사능피를 형성해 10일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자랑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1950년 전쟁때부터 60여년내내 미국의 일방적핵위협속에 산것은 복이다. 바로 그 일방적침략구도, 곧 절대불변해보였던 비대칭대결구도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의 국방위원회 1월 16일 중대제안발표된 작년봄 핵전쟁직전 전면전상황처럼 미국이 또다시 꼬리를 내리었던것이다. 일본에 정박중인 핵항공모함(《조지 워싱턴》호)정비를 핑계로 본국으로 회항시키고 미국의 여러 핵전략무력들도 2월말 시작되는 《(카릴로브) 〈한〉 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동방의 조

그만 분단국가, 국제적으로 철저한 고립무원상태에 처한 북(조선)에게 소위 세계 《유일초대국》이 지난 기간 왜 이처럼 끝없는 수모와 패배를 경험해야 했는지

거짓말밖에 할수 없는 가공한 미국

기자: 하다만 미국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 기 렬: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할수 있는것, 할수 없는것까지 다 해보았다.

이제 더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오직 거짓말뿐이다. 세계에 대고 후백을 전도하여 조선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는것뿐이다.

거짓전술은 일종의 사기술이다. 사람의 눈과 판단을 속여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하기 위한 장사술이다. 물론 거짓의 목적은 상대를 속이는것이다. 무슨 방법으로든 거짓하는 주제에 있어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2000년대 후반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널리 받았던 주오지서들중 저명한 언론인이며 녀성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의 《충격교리: 재난난주의의 도래》란 책이 있다. 《신자유주의》교리가 세상을 어떻게 끝없는 《충격과 재난》에 몰아넣었는지를 고발한 책이다.

부위는 바보스러움으로 세상을 충격과 재난에 몰아넣었다던 그를 이어 오바마는 부위와 정반대로 《잘생기고 말 잘하는 하바드법대출신의 특독한》으로 세상을 충격과 재난에 몰아넣은 인물이라고 평가할수

리해자체가 어려웠던것은 당연한것이다.

부지부파지기(不知彼不知己)(상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百戰百敗)라는 가르침대로다.

거짓말밖에 할수 없는 가공한 미국

기자: 하다만 미국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 기 렬: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할수 있는것, 할수 없는것까지 다 해보았다.

이제 더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오직 거짓말뿐이다. 세계에 대고 후백을 전도하여 조선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는것뿐이다.

거짓전술은 일종의 사기술이다. 사람의 눈과 판단을 속여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하기 위한 장사술이다. 물론 거짓의 목적은 상대를 속이는것이다. 무슨 방법으로든 거짓하는 주제에 있어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2000년대 후반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널리 받았던 주오지서들중 저명한 언론인이며 녀성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의 《충격교리: 재난난주의의 도래》란 책이 있다. 《신자유주의》교리가 세상을 어떻게 끝없는 《충격과 재난》에 몰아넣었는지를 고발한 책이다.

부위는 바보스러움으로 세상을 충격과 재난에 몰아넣었다던 그를 이어 오바마는 부위와 정반대로 《잘생기고 말 잘하는 하바드법대출신의 특독한》으로 세상을 충격과 재난에 몰아넣은 인물이라고 평가할수



본질을 세상이 널리 깨닫게하는데 부위와 《부위부들》로 불린 블레어 전 영국총리가 역으로 혁혁한 공로를 세운것과 같다.

오바마가 집권한 이후 세상에 준 배신감과 혼돈, 실망, 좌절, 절망감은 《충격, 재난 구제》였으며 하여 그것은 부위때 받은 충격, 재난과 차원이 전혀 다른것이었다. 오바마의 등장은 부

위덕에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던 반미반제자주독립운동의 공고화, 세계화를 일시에 멈추게 함과 동시에 한편 많은 이들을 극도의 혼란과 착각, 배신감, 좌절, 절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수 있다.

오바마는 소위 《진보(좌파)운동배경》을 내세워 미국은 물론 세상전체다수 《깃발인》 민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했었다. 그의 뛰어난 거짓과 《말 잘하는 특독한》은 세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서 《인류미래의 진정한 변화를 진심으로 기대케》 만들었던것이다. 세상다수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최면에 걸려있던동안 그를 내세운 지배엘리트들은 그들의 실락승도를 조금이라도 늦출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놓고볼때 미국의 실체는 거짓으로 일관된 충격과 재난의 연속과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승냥이는 결코 양으로 될수 없다.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통치로써 필수불가피로써 피로써 지켜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되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선군정치로 군사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필연적전제일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든 막강한 군사력만이 조선반도의 안정을 담보할수 있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공화국인민들이 앞으로도 병전로선을 틀어쥐고 자위적국방력을 역척같이 다져나가기라하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속에서 자위적억제력을 틀어쥔 공화국이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의 최후승자가 될 날은 머지않았다고 본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